

# 전국 첫 로컬 JOB센터 문연다

### 장수군 취업활성화 과란불 지역일자리 허브역할 담당 안정된 고용률 제고 기대

장수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일자리 발굴과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한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수군은 1일 군청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장수군의회장,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조덕현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제1호 장수군 로컬 잡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은 지역로컬 잡 센터에 대한 미래비전 설명과 장수군과 전주고용노동지청간의 약정서 협약, 현판제막 등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의 로컬 JOB센터는 지난 달 19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으며 농촌지역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직



장수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일자리 발굴과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한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업정보제공과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일자리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거점공간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10여명의 인력과 사업비 1억원 투자해 일자리 소외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트를 파견해 홍보와 상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된 고용률 제고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경제과를 새로 정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속발전 가능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진안군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2018년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군민의 장 수상자는 ▲문화체육장 전병구(74), ▲공익새마을장 손은수(58), ▲산업근로장 황태연(60), ▲애향장 최인규(55)씨가 각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장 수상자 전병구씨는 마령면 출신으로 진안군 고리걸기 대표선수로 10년간 활동하면서 전라북도 도민체전 고리걸기 분야에서 8년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진안군의 명예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공익새마을장 수상자 손은수씨는 부귀면 출신으로 30여 년간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면서 애민정신이 몸에 밴 공직자의 품성으로 고항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특히 2010년 진안군에 수해피해 발생 시 중앙부처와 진안군의 가교역할을 통해 수해복구 예산 194억원을 확보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 수상자 황태연씨는 2011년도에 (주)원광전자 대표로 취임해 원광전자를 고용인원 120명에 연 매출 170억 규모의 향토 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전병구 손은수



황태연 최인규

특히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지역사회의 환원하는 등 꾸준하게 지역사회를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애향장 수상자 최인규씨는 성수면 출신으로 재진안향우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향우회원과 주민들 간의 소통화를 위해 활발한 애향운동을 했으며 특히 진안 농특산물을 전주시에 판매 직거래 판매하는 '진안사람 어울마당' 행사를 6년간 개최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군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18일 제 56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 및 2018 진안홍삼축제 개막식 시 수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재경 장수군 향우들의 화합과 친목, 애향심을 다지는 제8회 장수사랑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한양대 인근 '살갓이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장수군수와 김종문 장수군의회장 및 군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장수군 공무원, 이정만 재진안 장수군향우회장, 재경 장수군민회 이상인 회장, 재경 각 읍·면 출신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수사랑 한마음 체육대회는 재경장수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애향 행사로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되며 격려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장수 농특산물 판매부스가 설치 운영돼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로 인기를 끌었다.

군민회에서는 500만원 상당의 장수 농특산물을 구매해 경품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상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수사랑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화원 친목도모와 화합을 도모하고 장수출신이라는 자부심을 키워 앞으로 우리 고향 장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 재해예방 위해 하천 정비

무주군이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천면 원당천과 안성면 구랑천, 설천면 구원동천, 안성면 사전천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2019년에는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해 설천면 원당천 수해 상습지개선사업과 안성면 구랑천, 설천면 구원동천, 안성면 사전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지구로 선정된 안성면 사전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9년에 8억 원이 투입돼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실시되며 2023까지 총 10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천개수 6.43km)은 2021년까지 294억 원, 구랑천 하천정비 사업(하천개수 10.5km)에는 2022년까지 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하천사업 제안공모로 선정된 구원동천 하천정비 사업은 2022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와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해 사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지방하천 정비로 하천 범람의 재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며 "결국우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천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섬김행정, 정직·진실 바탕 돼야” 강조

### 황인홍 무주군수 월례조회서 공직기강 확립 만전 당부

황인홍 군수가 지난 1일 군청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실시된 월례조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취임해서 내내 섬김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섬김 행정은 정직과 진실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일삼고 조직분위기를 흐리거나 직무에 태만한 공무원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 스스로가 지역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무주군청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단풍철을 맞아 다중집합시설을 비롯한 숙박·식당의 청결과 위생,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줄 것과 ▲국경일 국기달기, 그리고 ▲10월에 이어지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특산물대축제에 도심으로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황인홍 군수가 지난 1일 군청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실시된 월례조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방식으로 변경되는 만큼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 직원, 전 부서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황 군수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추진 중인 사업추진에 주력해줄 것과 내년 예산은 공약과 현안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군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월례조회 후에는 2018 공직자

안보교육도 실시됐다.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교육은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안보교육 전문가 황호현 강사를 초빙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을 주제로 최근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 자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다문화 이주여성 정신건강 실태 전수조사

진안군이 관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나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총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245세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해 지원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질환으로의 진행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 쓰일 설문지는 교육 및 경제 활동 등 일반사항과 우울증 척도(CES-D)검사, 자살 생각 척도(SST-BECK)검사 등 총 89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다국어 번역 작업을 통해 자기

입식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군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 대상자는 정신과 전문의 연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주여성 스스로 정신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신건강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진행해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정신건강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자료를 활용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